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
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
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
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
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
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.
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드립니다.

● 보낼곳: 우 110-170
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-33
현대불교신문사
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
● FAX: (02)737-0697/8
● PC통신: 인터넷부다피아
http://www.budchapia.com/mem/ha
nmaum

법공양 페이지

정신계 무시하면 '반쪽이' 삶

17면에서 계속

신겁니다. 그러나 가다가 열면 한명
남을 가 말까 했답니다. 지금 세상에
신발이나 두둑하게 있겠지만 그때엔 신발
도 제대로 없이 짚신 하나 신고 가다가
또 하나 같이 신고 그러다 보면 다 떨어
지고 맨발로 걸어요. 그 고생하신 생각을
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
셔서 바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
그 역대조사들한테 보답을 하는 것과 같
습니다.

체험담 나누는 것도 보시

그리고 사납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
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지금 사
람이 왜가지고도 자기 어떻게 사느냐
에 따라서,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
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. 사람이
되어서도 수천년, 수만년을 이렇게 돌다
가 상세계로 차원이 높아지는 수가 있고,
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하천세계로 떨어
지는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상천세계나 하
천세계나 하는 교차로기 때문에 중세계
에서는 그렇게 사납되기가 어렵고 하천세
계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. 그러니까 우
리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공부해야만 합
니다.

어느 종교든지 이름은 이름일 뿐 거
기에 집착하고 믿는 게 아니라, 어디에서든
자기 자신을 진실히 믿고 실천하는 것이
중요합니다. 인생이라고 태어나서 한철
살 때 우리가 한 철 사는 이 모습과,
한 철 사는 이 모습 속의 생명들과, 한
철 사는 정신계가 어떻게 삼합이 합쳐서
나왔는지 그런 것 좁은 우리 체험하고
느끼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.

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들을
체험담으로 남에게 알려 준다면 그것이
바로 훗날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
되고, 또 남들이 볼 때도 그걸 보고 교화
가 되고 기록으로 가던 사람들도 되돌아
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여러 가
지 보살행합니다.

잘 된다 못 된다 말기고

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고정된 게 하
나도 없습니다. 만남도 고정되지 않고,
보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듣는 것, 가고
오는 것, 먹는 것, 하나서부터 열까지 고
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 과거는
바로 찰나 전이고 미래는 찰나 후란 말
입니다.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연방
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. 우리가 대상을
놓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실험실
이도 찰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'상점을 하나 내는 일을 생
각해 보십시오. 어떤게 잘 되는가 어떤게
못 되는가 어떤 언어가 되는가 이런 건
상상이 아닙니다. 용도에 따라서 가게를 연
물건들이 써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는
지, 잘 팔릴 수 있는지 등등의 문제를 잘
살펴서 책정을 하는 것, 이것이 바로 잘
되는 것 못되는 것이 틀이 아닌 가운데
서 돌아가는 이치입니다. 그래서 눈도 있
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
니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못
되는 것 못되는 것 잘 버는 것, 이 것을
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어
떻게 해보면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
있을까, 그러면 거기에서 요양이 생기는
것이 결정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계
산도 없이 빚을 덜어 버리고 가게를
연어서 그걸 한달 이자로 다 빼지 뭐
가 남습니까? 먹고 사는 건 거기서 자꾸
줄어드는 거예요. 들고 다니며 팔든지 이
렇게 해서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
가다보면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이 있을
겁니다.

정성 지극하면 하늘도 움직여

정성이 지극하면 감천이랍니다. 사람이
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뜻
을 행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
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.
애기 하나 하겠습니까. 어떤 사람이 은행
앞을 아주 정성스레 삼년을 쓸었다니까.
어느 날 은행원들이 장난삼아 생각하
기를 '신문지를 오려서 돈처럼 만들어서
한번 내내져 보자. 그러면 아주 좋아서
들고 달아날거다.' 하고 신문지를 잘라 돈
봉투처럼 만들고 뒷면이 교대를 해 들어
준비를 했는데, 편사람이 교대를 해 들어
오면서 진짜 돈봉투와 바뀌어 버렸습니
다. 그러니 진짜 돈을 청소하는 사람에게

내려지고 신문지로 만든 가짜 돈을 가져
가는 데로 보냈어요. 그래서 청소한 사
람은 그 돈보따리를 들고 가서 자기가
공부를 못했으니 학교를 지었는데 그 은
행의 지점장과 직원들 이름, 그리고 몇몇
아는 사람 이름을 넣었답니다.

그 학교 지은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하
니까 신문사에서 은행으로 돌려 왔지 않
겠습니까, 그래서 모든 게 밝혀지고 그
사람네들이 탄복을 했답니다. 남을 무시
하고 그렇게 장난삼아 한 것이 현실로
벌어지면서 그 사람의 착한 마음도 알려
졌고 말입니다.

또 어느 가난하지만 착하고 바르게 살
아가는 사람의 얘깁니다. 방 한칸이 없
어서 찢팔매고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
"스님, 여덟학년 살았습니까?" 하고 다섯
식구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당해보지
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. 그래서 내가
그랬습니다. "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
멍은 있다. 그러니까 어서 집일 가봐라.
갈 때에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 더
욱 좋으데고..." 해서 보냈습니다. 그런 돈
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. 있었으면 그냥
다 왔을텐데 말입니다. 그래서 그사람은
나의 위안에 울음을 그치고 가는데, 길바
닥에 무슨 종이벌치 같이 생긴 큰 신문
지 동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. 추운 겨울
인데도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신문
지라도 필요하겠다 해서 가져 갔는데 가
서 그 신문을 풀어서 보니까 종이 잔뜩
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급한
대로 다섯식구 사는데 쓰기로 했습니다.
그 사람이 그렇게 얘길 해요. 허허. 구공
탄 백작 들여놓고 쌀 한가마 들여놓으니
간 세상에 황제 부럽지 않더라고요. 그래
서 내게로 와서 "스님, 참 고맙습니다" 해
요. 그래서 "왜 날려려 고맙데? 당신이
오지 않았으면 나도 없을 것이고 내가
당신을 보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없을 것
이야. 언젠가 사람과 모든 일체 생명들은
다 그렇게 해서 연관이 돼고 인연이 되
어서 돌아가는 거지. 그렇지만 그저 그렇



그림 · 최주현

“자기가 자기를 못믿는다면 그게 뭐니까” 생활이 심성과학... 정신·물질 돌아닌 하나

게 어려워도 마음이 착하고 진실하니까
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?" 그랬어요.

지금도 그 사람은 부처님의 법이 이러
게 좋다는 것만 알고 살고 있습니다. 이
모두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. 하늘이
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소리
말입니다.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
다. 꼭입니다. 이런 불림이 없습니다. 어
떤 것이든지 내가 마음을 올바르게 쓰고
생각을 넓게, 인(仁)으로써 남의 뜻을 하
지 않는 그 마음, 내가 잘하든지 못하
든지 내가 있으니가 상대가 있다는 사실
아시고 모두 잘할 하시면 아마도 보이지
않는데서 무주상보시가 내릴 겁니다.

모두 상세계로 갈 수 있다면

나는 이년까지 거짓말을 해서까지 중
이 될려고 하지도 않았고, 거짓말을 해서
차원이 높아지려고 생각지도 않았고, 이
름을 가지려고도 안했습니다. 세상 살아
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내 마음
아닌데서 거짓말을 하고 현혹을 시키고 이렇게 해
서 이름이 나면 뭐 하겠습니까? 그 죄값
은 어디서 반가요. 물론 죄값 안받을려고
그라는 것도 아닙니다. 만약 죄값을 그
렇게 내가 다 받게 되어서 물에서 사는 생
명들이나 물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또 어
려본이나 더 평화롭게 고생없이 살 수
있는 상세계로만 단테는 나는 혼자가 없
는 가루가 된다 해도 그렇게 각오가 돼
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무
척 어려운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
렇게라도 쥐고 내 자(自)부처가 나한테 있
다 하고 반야줄을 쥐고 나가지만 해도
그것은 50% 이상 가는 겁니다. 그렇게만
하신다면 아주 기쁜 일이지요.

사고당하는 것도 인연인지요

스님, 제게 약 3년 동안 교통사고
가 4번이나 났습니다. 차가 폐차가
될만큼 큰 사고도 있었고, 눈길에 미끄러
져 사고난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람은
다치지 않았습니다. 눈길에 위험할 때는
"주인공, 이거 바퀴가 미끄러우니 절대
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이끌고 가." 하고
관하기도 했습니다. 주위에서는 사고가
나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니, 이것은 다
주인공 자리에서 공부시키기 위한 나름
이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
니다.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관
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, 아니면
그 상대방과 저와의 인연이 해결되기 위
해서 필연적으로 사고가 났고 더 잘 되
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

앞에서 아가 상점하는 얘기했죠.

이게 사고가 난다 안 난다를 떠나
서 '주인공, 너만이 사고 나지 않게 할
수 있어' 하고 항상 미리미리, 사고가 나
게 된 연후면 이미 지나가버려요. 나기
전에, 그래서 아침마다 관하고 타고 또
저녁이면 감사하게 관해라. 그 차도 생각
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
그 차도 들습니다. 차도 들고 안의 주인
공도 들고 말어요. 그러니까 주인공, 자
기 자부처는 자기를 능하게 만들기 위
해서 이끌어 주는 거죠. 그러니 열심히 해
보세요.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.
그럼 알게 돼요.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생
각하기에 달린 것이거든요. 내가 이렇게
관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마음이 불안하
거나 불신하면 안되지요. 자기 뿌리와 자기
씩인데 여겨 된다. 안된다 이래서만이 믿
습니까? 진짜로 믿어야죠. 진짜로 믿고
관해 보세요. 그것뿐이 아니라, 당신으로
인해서 남이 다치거나 또 편사람으로 인
해서 내가 다치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죄
없이 맞은 때는 빨리 낫는다고 그랬습니

다. 그러니까 그저 오히려 내가 맞았으면
저 사람 수고를 시켜서 나를 사람되라고
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
면 좋을 거예요.

자비는 끝이 없는 것인지

스님께서는 현세에서 '고(苦)' 라
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
이자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고(苦)
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비라는
그 한자를 풀어보면 '자(慈)'는 '사랑
자' 이고 '비(悲)'는 '슬픔 비' 라고 풀
이되고 있습니다. 중생을 제도하는데 있
어서는 자애로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
따끔한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
니다.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, 하되 함
이 없는 그 비원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
나, 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 수
있다고 보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쭙
고 싶습니다.

끝없이! 끝없이 힘이 없이 하고들
모두 가십니다. 이런 현실에 나와
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끝없이 하고 가
고 있어요. 힘이 없이 하고들 보세요. 보
는 사이 없이 보고, 들은 사이 없이 들
고, 모든 걸 힘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지속이 된다,
안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물이 흘러
들어서 또 들고 도는 것처럼 그대로 끝
이 없는 거죠. 그 끝없는 까닭에 바로 교
차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거기에서
이제 차원이 높아지느냐 더 낮아지느냐
에 인제 생활이, 삶이 주어진다 말입니
다.

비행기 추락이 잦은 이유

최근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우리
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. 특
히 사고난 곳 중에 캄보디아라는 곳은
과거 일제시대 때 정신대 할머니들이 많

이 끌려갔던 곳입니다. 제가 생각하기
에는 구천을 방황하고 있던 그분들의 원혼
이 거기에 끌려갔다는 것을 보여주는
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스님이 마음을 내
셔서 구천을 방황하고 있는 원혼들을 좀
제도해주시고, 현재 일본정부에 요구하
고 있는 그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이 조
속히 그리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
스님께선 원력을 좀 내 주셨으면 감사하
겠습니다.

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
만 말입니다. 항상 들고 도는 것입
니다. 부처님이 계셔도 그것을 해결 할
수가 없죠. 왜냐? 한번 재판을 받아서 그
렇게 됐으면 그걸 없앨 수가 없고 다시
금 돌려서 건지는 거죠. 왜 죽느냐, 왜

좋아하실까? 그런 마음이라면 당신이 좋
으니깐 그 마음도 좋고 그 마음이 좋으
니까 당신도 좋게 되는 거지. 한 영주살
이니까.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살
준 집에서 사는데 자식은 셋방살이
이러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소?
어떠한 마음이라도 내서 좋은 일이 되
게끔 해주실거요. 나는 죽은 사람 따로 치
고 산사람 따로 치지 않아요.

감사합니다. 스님. 그런데 지금
저의 현실에서는 5대조부터 전부 다
계시기 때문에 집안 친척분들이 다 관련
이 되었습니다. 그분들은 이 영탈에 대
해서는 아직, 제가 마음도 많이 내면서 하
지만 흐름이 같이 형성이 안되어 있기
때문에...

모든것은 내 모습 내 아픔과 같고 내 슬픔 내 배고픔과 같으니 모두가 내 도량 나아닌게 없어요

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유는 정신계에 있
는 거니까 그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한번
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. 거기 끌려간
놈이나 끌고 간 놈이 있다면, 다시금 끌
고 가는 놈이 되고 끌려가는 놈이 되고
이렇게 바뀌어거든요. 그게 인연입니다.
그런 것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
가지고 '왜 이렇게 죽느냐, 사느냐' 이러
면 말이 안되지요.

정신대 원혼 구제됐으면

그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런 고통
은 어느 정도는 종교적인 결로도 많
이 승화시키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
인연을 맺은 끌려간 사람들, 사실은 이
문제를 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어
떤 영혼의 구제가 미처아 되지 않은가,
당장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게 아니고
이 문제가 어떤 인연된 한마음 공동체라

그것은 그냥 놔 두려고, 위쾌에다
써서 다라니에 써서 영령들만 모시
면 거긴 빙터가 돼버려요. 육신은 사대로
다 가잖아? 온기를 쫓아서 가고 물로
쫓아서 가고 흙으로 쫓아서 가고 바람
으로 쫓아서 가는 거 아니예요? 그러니까
잘 생각하고 편하게 사세요. 제가 말씀
드리는 것은 사람되기 어렵고 부처되기
는 더욱 어렵고 진짜 부처가 돼서 평등
공평으로써 삶을 살기는 더욱더 어렵
다입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애를
쓰지 않아도 안되고 애를 너무 써도 안
된다 얘기도.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
모습대로 분수대로 살면서 오직 그 놈이
이렇게 움직여가게 하거나 하는 거,
이것을 진짜로 아신다면 그저 급하면 어떤
거든지 다 거기다 넣으면 바로 화해서
단 걸로 변해서 현실로 나오게 돼 있
어요. 바로 우리 생활자체가 심성과학입
니다. 과학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? 무슨
물질과학, 정신과학 이러는데 우리가 살
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정신과학과 물질
계가 둘 아니게 막 들어가고 있는 거죠.
그러니까 심성과학이요. 과학 아닌게
하나도 없어요. 어쩌면 그렇게 모한지 이
거 보면 저거 보게 되고, 이 말하고 저
말하고 아버지 노릇 잘하고 아우 노릇
잘하고 이거 자동적으로 그냥 해나가는
것이 바로 심성과학이지 뭐니까? 모두가
과학 아닌 게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? 과
학 아닌 게 어디 있었어요? 물질과학으로
만 볼러니까 과학이 따로 있는 것처럼
얘기하지만 과학도 이 마음을 떠나서 따
로 있지 않습니다.

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, 이
구멍이 한 털구멍이라면, 이 털구멍 하
나가 자발이려면, 털구멍에 이 세상을 다
넣어도 남음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. 털구
멍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넣고, 또
생기면 거기다 넣고 그러면 불을 게 없
고 집착도 없고, 그렇게 되면 멸도 없고
생사도 없고 다 없는 거죠. 그냥 모두 한
털구멍에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와 같이
바로 자기 자발에, 자발이 주인공이니까
그냥 주인공에 다 바쳐주세요.

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거나 암에 걸렸
다고 그러는데, 의사가 그러면 '이제
나는 죽었구나' 이렇게들 생각해요.
두, 그래서 바깥으로 쫓달리는 거죠.
100% 다 그냥 의사에 매달리고 비비는
거예요. 그러나 의사인들 어떻게 합니까?
그러니 반씩 분담을 해서 의사 반, 내 마
음 반 이것이 돼야 합니다. '자기 뿌리만
이 자기 싹을 살릴 수 있다' 는 그 믿음,
그리고 그 의사도 그 자부처의 인연으로
만난 거니까 그것 또한 탄 손이 아니죠.
그렇게 해야 할텐데 그냥 '주인공은 뭐,
뭐하는 주인공이야. 주인공 이름 불러도
뭐 나오지도 않고' 그러니까 자기 싹
경을 보면 자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
데 싹경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없다는
거죠. 그럼 못 믿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
못 믿는거지 그게 뭐니까?

조상들 영탈에 모시고 싶은데...

저희 율 조상님들은 지금 공동묘
지에 모셔져 있습니다. 그런데 금년
에 제가 천도재를 지내면서 공동묘지에
모셔져 있는 일에 대해 스님께 여쭙 적
이 있습니다. 그때 스님께서는 제가 지금
전세 사는 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천도재는 지냈지만 하나 공동묘지는 사실
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
영탈에 모실 마음을 냈습니다. 그런데
친척분들은 반대해하시고 일반 신에 모
셨으면 합니다.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
"육신은 그렇다 하나 혼을 전부 들어서
탈로 모실 수도 있으니까" 고 하신 적
이 있습니다.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.

거기는 지금 조그만 셋방살이이지.

자기 집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
기 사람이거나 자기 그 사람이거나 모두 셋
방살이인데 만약에 그 영혼을, 조상들의
영령을 전져서 탑에다 모신다면 얼마나

자기 자신이라 하는 게 있어요. 자신!
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게 아니라,
자기의 근본 자발이요. 부지런히 정진
하십시오.